

담양, '그린뉴딜정책'으로 성장 동력 마련

새로운 일자리 창출 위해 그린펀드 조성

뉴딜협동조합 설립 검토...내달부터 추진



담양군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 발표에 맞춰 최근 최형식 군수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과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담양식 그린뉴딜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모든 분야에 걸쳐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담양군의 정책목표인 생태도시정책에 지역경제 위기 극복대책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그린 뉴딜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담양군이 밝힌 '담양식 그린뉴딜정책'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의 가치를 중심으로 방역관리 강화를 통해 코로나19 제로지역으로 만들고 취약계층의 보호와 재

정확대로 공공일자리 확대하는 등 담양다움의 경쟁력 강화에 담양식 일자리 모델을 접목, 지역성장 동력을 높일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제로화와 사람을 비롯한 동·식물의 바이러스 없는 방역과 환경정책 강화 △산소가 가장 많은 지역 만들기 위한 탄소 제로화 추진 △친환경 농업·위생축산 강화로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 △농산물 온라인 유통시스템 강화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환경개선(그린하우스) △음식관광 산업화를 위한 위생식단 정착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하수도관 교체와 군민이 실천할 생활문화 준칙 마련 등 기존의 생태도시화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담양식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주거단지 조성을 비롯한 지역 개발사업 추진 시 대나무 울타리 등 생태적 경관조성으로 공공형, 농촌형 일자리 창출 △대나무, 산림자원을 통한 숲과 정원도시 조성과 차별화된 여가 및 레저용 임도 조성으로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

원(물담길 등)의 체계적 관리로 담양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시범마을을 육성하고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에도 그린재생 개념을 도입해 담양 예술가와 담양을 중앙로 주변에는 단품 중심의 먹거리 창업공간을 마련해 청년상인의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창업지원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일자리를 위한 그린펀드조성과 뉴딜협동조합 설립'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담양군은 이를 위해 별도의 TF팀을 구성해 코로나19 이후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방향을 설정하고 5월부터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공무원, 각계각층이 참여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담양식 그린뉴딜정책의 가치를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협치와 연대, 공동체의 중요성과 환경과 더불어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을 일깨워준 큰 계기가 됐다"며 "그린뉴딜정책은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광양시, 전라남도 청년창업 지원 사업

1인당 최대 1800만 원

광양시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청년창업자 육성을 위한 '전남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5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전남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전라남도과 광양시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사업

수행은 전남환경산업진흥원에서 총괄한다.

광양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고용보험 미가입 청년이 사업 참여할 수 있으며, 유흥업종, 숙박업 등 일부 부적합 업종을 제외하면 전 분야 창업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모집에서 10명의 교육생을 선발하고, 창업 기초교육을 통해 최

종 5명의 창업지원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예비 창업 청년에게는 창업 심화교육 및 평가를 통하여 1인당 최대 1,800만 원의 창업지원금이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홈페이지 및 전남환경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jeipi.or.kr) 공지사항에서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광양시 투자일자리담당관실 일자리창출팀(☎061-797-1959) 또는 전남환경산업진흥원 기업지원부(☎061-430-8354)로 문의하면 된다.

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공고문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이메일(rksek@jeipi.or.kr)로 5월 1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장형근 투자일자리담당관은 "빛나는 아이디어와 잠재력을 가진 청년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며 관심있는 지역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웅 기자

나주시, 내년부터 무농약6년차 벼 지원 중단

친환경 농업 내실화·인증 품목 다양화

나주시는 2021년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지원사업 대상 농가 중 '무농약 벼 인증 6년차 농가'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업의 내실화와 인증

품목 다양화를 위해 과수·채소 등 품목별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나주시는 다양한 품목의 유기농 중심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내년도 본 사업에 대한 무농약 벼 6년

차 이상 농가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과수·채소 등 다양한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전라남도 친환경농산물 인증 품목에서 벼 농가

비율은 전체 70% 이상을 차지한다. 아울러 친환경 벼 재배 전체 농가 중 약 66%는 무농약 벼 인증단계로 유기농 농산물 구매를 선호하는 소비자 수요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내년부터 지원이 중단되는 무농약 6년차 벼 농가를 대상으로 유기농 인증단계 상향 또는 타 작목 전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순천 농협,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농산물 재배 농가 피해 최소화...학교급식 학생 대상

NH농협은행 순천시지부와 순천농협은 순천시의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공급사업"의 적기 공급을 위해 최근 인력지원에 나섰다.

전라남도과 순천시가 주관하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공급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늦어지면서 급식 중단에 따른 농산물 재배농가의 피해 최소화과 학교급식 대상 학생들에게 건강한 우리 농산물을 직접지원하고자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공급사업'으로 대체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순천시 관내 341개소(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46천여명의 영유아 및 학생들에게 곡류·과일류·과채류 혼합 구성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오는 30일까지 순차적으로 각 가정에 전달된다.

NH농협은행 순천시지부 및 순천농협 임직원들은 친환경농산물이 관내 학생들 각 가정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순천농협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부족한 일손지원에 나서게 되었다.

농협관계자는 "관로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와 학생들을 위해 꾸러미 사업계획을 수립한 순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에 고맙다"면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지연되면서 일손이 집중되는 농번기에 지자체와 공동 일손돕기, 법무부 사회봉사자 및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봉사추진 등 농가 인력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고흥, 대표먹거리 종합컨설팅 추진



보급 중에 있었으며, 판매를 희망하는 업소에서 보다 완벽한 레시피 전수를 필요로 하고 있고, 현재 운영 중인 삼치음식점은 전수받은 조리법대로 적용 시 대표음식으로 손색이 없는지 등의 정기점검과 보완이 필요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운영현황 파악 및 분석 △업소별 방문 1:1 조리 실습교육 3회 이상 △인테리어 및 정리 △수납 개선 방안제시 △SNS 활용 온라인 홍보마케팅 전략 등으로 오는 11월까지 7개월 간에 걸쳐 업소별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고흥군은 지난해 개발한 대표음식과 삼치요리의 조리수준 향상을 위해 메뉴를 전수받아 판매운영중인 대표음식 취급 희망업소 12개소와 나로도 삼치음식점 7개소를 대상으로 종합컨설팅을 추진한다.

군은 그동안 대표음식을 개발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문화관광의 중심지

기외 과장 영암! 문화관광 중심도시!

평 일 범 상 한 속

남다른 여행

여행을 떠난다는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월출산국립공원/한국트롯가요센터/월출산 기찬랜드